

도 일자리 정책 빛났다

고용노동부 평가서 '종합대상' 수상... 인센티브 4억원 확보

전북도가 고용노동부 주관 '2017년 전국 지자체 일자리 정책 평가'에서 전국 1위로 '종합대상'을 수상해 인센티브 4억원을 확보했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가 시행하는 전국 지자체 일자리 정책 평가에서 전북이 전국 1위 '종합대상'을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선6기 송하진 전북도정이 그동안 꾸준히 진행해온 지역자원과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일자리 시책 추진 전략이 일자리 관련 지표(정량평가)와 단체장 의지(정성평가) 등 심사부문에서 전체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서울 중소기업 중앙회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 시상식'을 갖고 올해 우수한 평가를 받은 지자체에 대해서 시상했다.

시상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우수평가 지자체장, 관계 전문가 등 400여명이 참석했으며, 송하진 도지사도 이날 시상식에 참석해 국무총리로부터 직접 종합대상기를 수여받았다.

고용노동부는 2010년부터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고용상황 및 일자리정책을 종합평가해 우수지자체를 시상하고 있다.

전북도는 2012년 이후 매년 우수상(2013년 최우수)을 수상해 왔으며, 올해 평가에서 처음으로 전국1위 종합대상 평가를 받았다. 이는 지역특화 일자리 창출 중심의 민선6기 전북도정 운영이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전북도는 주요 고용지표를 평가하는 정량평가에서 군산조선소 문제 등 어려운 고용환경 속에서도 고용률 및 경제활동참가를 증가 전국1위, 여성고용률 증가 전국 3위, 실업률 전국 최저, 상용근로자 수 증가를 전국 3위 등 주요 고용지표가 고르게 개선돼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자체의 일자리 시책을 평가하는 정성평가에서는 최우선적으로 지자체장의 일자리 대책 추진 의지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송하진 도지사는 민선6기 출범과 함께 취임 후 모든 도정이 일자리와 연관된다면서, 특히 전북이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추진해왔다.

이러한 내발적 발전전략을 통한 일자리 창출 시책을 시행해왔다.

전북투어패스를 통한 관광서비스 일자리창출, 탄소산업 활성화를 통한 미래먹거리 기반조성, 장입후계농업 경영인 육성 등 농산업을 기반한 일자리 창출과 같은 3대 핵심도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시책이 지역자원과 특성을 살린 일자리 정책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2011년 전국 최초로 실시한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 올해 전북에서 발굴해 전국으로 확산된 지역고용실천전략 수립 사업, 전국 최초로 실시한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과 사회적기업 통합 브랜드 출시 등 전북도에서 새롭게 발굴한 일자리사업의 창의성 부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기본소득 제정을 통한 청년정책의 제도적 기반 마련, 탄소산업육성법 제정을 통한 정부 차원의 지원 근거 확보,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통한 금융타운 기반조성 등 장기적으로도 미래 지속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점 역시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이끌어낸 요인이 됐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와 관련 "새 정부에서 일자리를 최우선 정책기조로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 정책과 추진실적을 인정받은 만큼 의미는 비가 크다"면서 "인센티브로 받은 사업비도 지역의 고용문제를 해결하는데 다양하게 활용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평화의 소녀상 익산지역 세우지" 익산지역 9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평화의소녀상 건립 시민추진위원회'가 평화의소녀상 익산지역 건립을 위한 서명운동을 24일 코레일 전북본부 익산역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

무더위 기승... 전북도, 폭염 피해 최소화 발로 댄다

이현웅 도민안전실장 정읍 무더위쉼터·우수저류시설 방문



전북도 이현웅 도민안전실장(사진)은 24일, 연일 지속되는 가마솥 더위로 폭염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정읍시 연지동 무더위쉼터 등을 방문하여 폭염피해 최소화를 당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해 쉼터 이용에 따른 애로 사항 청취, 무더위 쉼터 내 냉방기 작동상태 등을 점검했고, 우기 시 피해 방지를 위해 우수저류시설 현장관리

지시를 마쳤다. 올해 도내 평균 폭염특보일수는 지난 6월 16일 첫 폭염특보 이후 현재까지 11.2일로 전년 동 기간 2.2일에 비해 9.0일이 증가, 22만3000마리의 축산 피해와 23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이현웅 도민안전실장은 무더위 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께 폭염특보 시 낮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와 비닐하우스 작업시 2인 이상 동행하는 등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한 실천사항을 당부했다. 전북도는 재난관리기금 2억9500만원을 긴급 투입, 그늘막 73개소 설치와 주요도로 살수를 위한 살수차 임대료

(10대) 등을 시군에 배정,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억5000만원을 이용해 공공장소 열음비치, 홍보물(리플릿, 팸플릿, 부채 등) 제작·배포 등을 할 수 있도록 시군에 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촌고령자·독거노인 등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난도우미 8,004명을 통해 일일 건강관리 및 안부체크 등을 지속 추진하고 우수저류시설 사업장과 같은 야외사업장 및 건설사업장에 대한 무더위 휴식시간제 운영과 폭염특보 발생시 마늘방울, 가뭄방울 등을 실시하여 올해에는 폭염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폭염피해 최소화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일쭉전북' 보고 떠나는 특별한 휴가

여름 휴가철 관광특집호·특별부록 발간... 다양한 도내 정보 수록

'알아두면 쓸 데 있는 신비한 잡화사전' '일쭉전북' 전북판이 나왔다. 전북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에서 ㅎ까지 14개 단어로 떠나는 특별한 전라북도 여행'을 주제로 『일쭉전북』 8월호 관광특집호와 특별부록을 제작했다. 『일쭉전북』 8월호 관광특집호와 특별부록 '전북, 여행을 부탁해'는 기억, 농촌체험, 둘레길, 락(樂), 맛, 밥, 시간여행, 영화, 사진, 책, 캠핑, 투어패스, 판, 해변 등 7부터 ㅎ까지 14개 단어를 주제로 전라북도의 문화관광 정보를 담았다.

예를 들어, 'ㄴ-농촌체험'은 농식품부가 선정한 전라북도 대표 으뜸촌(농촌체험휴양마을), 'ㅅ-시간여행'은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전국적인 관광명소인 전주한옥마을, 군산근대문화유산, 'ㅌ-투어패스'는 전북투어패스, 'ㅎ-해변'은 전북의 해수욕장 등을 소개하고 있다. 관광특집호와 특별부록에 담긴 축제 및 행사 등은 주로 8월부터 연말까지 개최되는 것들을 수록, 여름 휴가는 물론 추석 황금연휴와 가을 여행주간 등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백치석 홍보기획과장은 "2017

전북방문의 해'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북의 다양한 문화관광 자원을 쉽고 재미있게 엮어 『일쭉전북』 관광특집호와 특별부록을 제작했다"며, "여름 휴가철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 등에 적극 활용돼 전북의 토탈관광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도는 서울·용산역, 강남터미널, 대전·세종청사 등 도내 관광객 유치를 위한 현장 홍보활동 시 『일쭉전북』 관광특집호와 특별부록을 배포한 것은 물론 도내 주요 관광지과 관광안내소, 게스트하우스, 커피전문점 등에도 비치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출범... 위원장에 김지형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한 가운데, 공사 중단에 관한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24일 공식 출범했다. 흥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또한 이날 위원들은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첫 회의를 했다. 위원장은 대법관 출신의 김지형

(50·사진)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가 맡는다. 원광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2005~2011년 대법관을 역임했다.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삼성전자 반도체질환경조사위원회 위원장 등도 맡았다. 분야별 위원은 모두 8명이다.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분야별 복수의 전문가와 단체로부터 3배수를 추천 받았다. 원전 찬·반 대표기관 단체 양측에 후보자 제척기회를 부여한 다음 전공·성별·세대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했다는 게 국무조정실의 설명이다. 인문사회 분야 위원은 류방란(58·여) 한국교육개발연구원 부원장,

김정인(39·여) 수원대 법행정학과 조교수가 위촉됐다. 과학기술 분야 위원은 유태경(38) 경희대 화학공학부 부교수, 이상재(38) 고등과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조사통계 분야 위원은 김영원(58)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 이윤석(48)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갈등관리 분야에는 김원동(58)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 이희진(48·여)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이 위촉됐다. 위원회는 이날 첫 번째 회의를 시작으로 길어도 10월 말까지 3개월가량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설문조사,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